

2 0 1 1 - 2 0 1 2 서 울 시 창 작 공 간
금 천 예 술 공 장

2011-2012 Seoul Art Space GEUMCHEON



나는 대인 관계에 매료되어 있다. 대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해체되는지 그리고 그 섬세한 기반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다. 내 작품을 이처럼 매력적인 대인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결과적으로 대중과 직접 작업하는 방향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 개인적 요구와 공적 기대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내 작업에서는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외부 전투와 우리가 지켜 내야 하는 내적 조망 간의 대화를 제시한다.

I am intrigued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how they form, how they dissolve, and their delicate underpinnings. I approach my artwork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is fascination, and consequently have moved increasingly toward working directly with members of the public. Through my continuing investigation of private needs and public expectations, my work presents a dialogue between the external battles we must face and the internal landscape we need to preserve.

Spoken Stage, 2012
in collaboration with So Yeon Park
site-specific performance at Temporary Space in Anguk





Untitled Project, 2012
HD Digital Video
video still



Preparing for Consumption, 2011
public performance



Preparing for Consumption, 2011
public performance

Jody Wood : 지난 5년 간 나의 작업은 트라우마와 치유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Spoken Stage〉는 나의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예술가)인 박소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끊임없는 죽음(은유적인 죽음과 문자 그대로의 죽음 모두)이라는 주제에 대한 나의 관심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는다. 지난 프로젝트(Preparing for Consumption)에서 나는 서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오래된 커플들을 인터뷰 했었고, 이번 〈Spoken Stage〉프로젝트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체적인 덧없음과 불가피한 죽음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큰 변화(트라우마적인 사건들 혹은 마지막들, 그런 죽음들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겪을 때 어떻게 은유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한번도 숙해본 적이 없는 문화 속에서 죽음이 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많이 바뀌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주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이야기되는 방식에는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인터뷰 진행자 : 네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지금 12주 동안의 세션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어떤 경험이었나? 이번 주 마지막 퍼포먼스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줄 수 있나?

Jody Wood : 그렇다, 12주가 되었다. 이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는 국경을 건너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 장년층 그룹과 매우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협업과 공동체를 통하여 시와 자기 표현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 미 장년층 그룹과 함께 단체 및 개인적으로 그들 스스로 작성 한 글로 4월 13 일에 노인복지센터 극장에서 한 번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는데, 20일에 진행 될 퍼포먼스는 개인 가정집(전통 한옥)에서 진행되어 매우 다른 분위기의 더욱 친밀한 공연이 될 것이고 더욱 사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듯 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 4월 20일에 진행된 퍼포먼스는 개인 가정집이 아닌 가변적인 한옥, '가옥'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자 : 이제까지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

Jody Wood : 비록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시를 짓고 퍼포먼스를 하며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에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수업과 과정에 실로 헌신적이었다! 나는 매우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글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암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도전적인 일은 마음을 활동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는 몸과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노화 과정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역사를 수용하고 현재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진행자 : 흥미롭다. 당신의 많은 작품들이 죽음과 상실을 다룬 것 같은데.

Jody Wood : 사실이다. 그 주제에 대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관의 차이를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 수업에 참여했던 어르신 중 한 분은 나에게 그 둘의 큰 차이는 서양 철학은 좀 더 실용주의적이고 동양 철학은 과거를 자연순환의 연속으로 포용

하며 좀 더 숙명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죽음이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순간이며 매일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화되고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진행자 : 죽음이 가까워 진 사람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나?

Jody Wood : 나는 이 점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적인 질문들을 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마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다. 또한, 그들이 대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불편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점은 그들의 시에 나타난다.

인터뷰 진행자 : 빨리 듣고 싶다! 소위 문화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 질문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작품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착취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

Jody Wood : 우리는 소외된 그룹들과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인식하는지를 알 수 없다. 착취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그들의 책임과 윤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장년층 분들은 특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문화로부터 소외되었고 젊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젊었을 때 지냈던 가치와 역할은 나이를 먹어 가며 변화를 겪었다. 직업과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이동적이 되고, 집에서 더 멀

어지고, 나이 많은 부모들과 조부모들은 그들이 이전 세대로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지원 구조를 가족들로부터 항상 받을 수 없는 오늘날 세계는 더욱더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모든 세대들 간의 차이를 연결 해주어 서로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진행자 : 당신은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차이를 연결해주는 것과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언급했다. 한국에 있는 것이 이런 주제를 표현하는 당신의 작업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Jody Wood : 확실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장벽은 내 작업의 과정이나 주제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한국에서 내가 평소애 하는 것 보다 더 유기적인 작업 방식을 취했던 것 같다. 나는 문화나 언어적 장애물을 깨닫지 않고 선입견을 갖거나 그 아이디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 이 곳의 작업을 위해서, 내 아이디어는 내가 맞닥뜨린 문화와 장벽으로부터 스며들 수 있도록 유연하고 유동성을 지녀야 한다.

‘The Spoken Stage’ 마지막 퍼포먼스는 2012년 4월 20일 안국동 근처의 ‘가옥(Temporary Space Seoul)’에서 열렸다.

(* Sonja Swanson 의 이 인터뷰 전체 원본은 [www. SeoulistMag.com](http://www.SeoulistMag.com)에서 볼 수 있다.)



Seize Duplicate Repeat, 2010
in collaboration with Mikel Bisbee-Durlam
public performance

Jody Wood : For the past five years or so my work has been about understanding trauma and the healing process. 〈Spoken Stage〉 is a project I’m doing in collaboration with a good friend of mine (and amazing artist) Park So-yeon. It was partially inspired by my continuing fascination with the subject of death—both metaphorically and literally. In my last project (called Preparing for Consumption) I was interviewing long-term couples about preparing for the death of their partner, and 〈Spoken Stage〉 brought me to the topic of preparing for one’s own death. Aging is a process that confronts us with our own physical impermanence and mortality... in my art I want to talk about ways to value life and each other and how to process metaphorical deaths we all experience in life when we’re going through a big transition: traumatic events or endings and how those deaths can bring new growth. The project has changed a lot because I had no idea what I was getting into, delving into this subject of death in a culture I’ve never been a part of. It’s a universal subject but there are many cultural differences in how it’s conceived of and talked

about.

Interviewer: If I remember correctly, you’re wrapping up a 12-week session, right? How has the experience been? And could you give us a little teaser of what to expect in the final performance this week?

Jody Wood : Yes, it’s been about 12 weeks. It’s been an amazing experience and I feel really lucky to have formed a very unique and deep relationship with this group of seniors that crosses borders, across culture and language barriers. We structured the class to teach the subject of poetry and self-express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community. We have already had one performance on April 13th in the Senior Center Theatre, where as a group, and individually, the seniors performed the script they had written. The performance on the 20th will be much different and much more intimate, being set in a private home (a traditional hanok), and will have a more private, conversational feel to it. (The Performance which was held on April 20th was not held at a private home, but at ‘Temporary Space Seoul’.)

Interviewer: What has the reaction been from the participants so far?

Jody Wood : Even though it has been a challenging process to express themselves in a non-native language, they have been enthusiastic about learning new vocabulary in English, working together on poetry, and performing. They’ve been really dedicated to the class and to the process! I’ve been really impressed actually and have seen a huge growth in their writings from the beginning of the class until now. Memorization has been a difficulty, but actively using the mind for something as challenging as learning a new language can help preserve it. I think that preserving the body and mind isn’t about resisting the aging process, it’s about embracing past history and finding value in the present moment.

Interviewer: That’s interesting, because a lot of your work seems to deal with death and loss.

Jody Wood : True, it’s been really interesting to see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Eastern & Western cultures on the subject too. One of the seniors in class told me that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Western philosophy is more pragmatic and Eastern philosophy is more Karmic, embracing the past as a continuation of a natural cycle. In my own thoughts, I’m thinking of death as a moment that is totally unknown and totally disruptive to daily life because it brings about a huge transition—but is ultimately transformative and necessary to bring about new growth.

Interviewer: Was it ever uncomfortable to talk about death with people who are so close to it?

Jody Wood :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is, but it wasn’t uncomfortable at all. I think this is because we spent so much time together before asking those more personal questions—now it’s like talking among good friends. Also, I don’t think they are generally uncomfortable with their own death, and that comes through in their poetry.

Interviewer: I can’t wait to hear more of it! Given the so-called cultural divide, I think one question has to be asked: Are you ever concerned that your work might be perceived as (or be) either patronizing or even exploitative?

Jody Wood : I can’t control how people will perceive this work, but because we are working with a marginalized group, exploitation is a sensitive issue that we are well aware of. To do this type of community work, artists need to be extremely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and ethics. Senior citizen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hear from because they are marginalized by culture and aren’t valued in the same way that young people are. The value and role they once had when they were younger has undergone a shift with age—their roles in their careers, in society, and also their roles in the family has undergone a huge shift. There also seems to be a change in the world today where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and more mobile, moving further away from home, and aging parents and grandparents don’t always have the same support structure from their families that they used to have in previous generations. So this project is really about bridging the gap between all ages so we can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human value.

Interviewer: You bring up this theme of bridging gaps and also communicating in your artist’s statement—how has being in Korea influenced the way your work expresses these themes?

Jody Wood : There are communication barriers for sure, and it really changes my work’s process and subject entirely. I feel like in Korea I’ve had to embrace an organic process of working even more than I normally would. I don’t want to approach my artwork by having a preconceived idea, and forcing that idea to be actualized despite cultural barriers and language obstacles. To work here, I need to have a lot of flexibility and fluidity so my ideas can be permeated by the culture and barriers I come acr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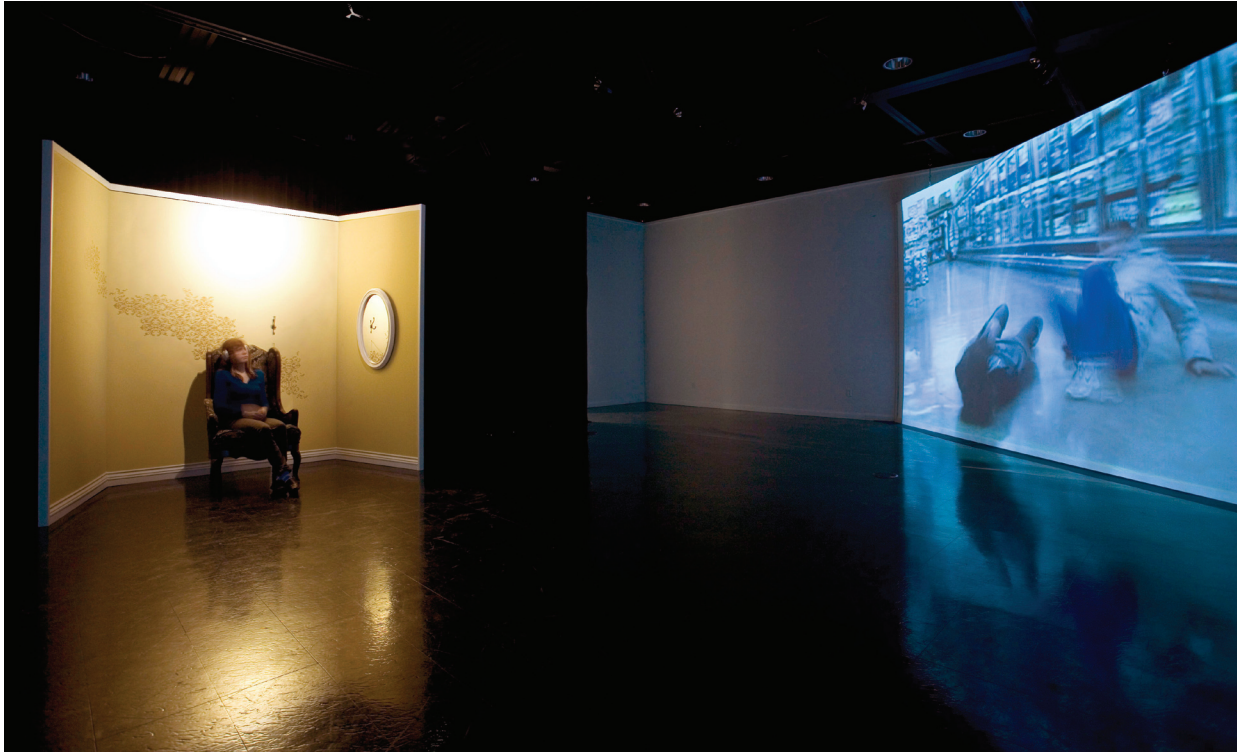
The 〈Spoken Stage〉 final performance was held at Temporary Space Seoul in Anguk on April 20th 2012

[* A longer version of this interview by Sonja Swanson originally appeared in www.SeoulistMag.com.]

Passive Aggressive, 2009
still from SD video
3 min. 14 sec.



Support System, 2009
audio and video installation
installation view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2011-2012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발행일 2012.6.27

기획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총괄매니저 김희영
기획·운영 김수아, 윤나영, 유재연
연구·조사 이아름
작가지원 배영주
교육·홍보 허은희
출판지원 하시는

번역 한국번역통역재단
디자인 삼십칠도 커뮤니케이션 (www.37com.co.kr)
인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쇄 및 홍보영상물 사업소 (031-906-1162)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2012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geumcheon.seoulartspace.or.kr
(153-814)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57(독산동)
T. 02-807-4800 F. 02-807-4125

<http://www.seoulartspace.or.kr>
http://blog.naver.com/sas_g
<http://geumcheon.blogspot.com>

서울시창작공간은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술창작 지원공간입니다.

Seoul Art Space GEUMCHEON 2011-2012

Publishe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Editor Sunhee Cho
Published Date 27, June, 2012

Planning Seoul Art Space GEUMCHEON
Manager Kim Hee-young
Program Officer Kim Soo-a, Yoon Nayoung, Jaeyeon Yoo
Researcher Lee Ah-reum
Artist Support Bae Young-joo
Education·Promotion Heo Eun-hyi
Publication Support Ha See-yeun

Translator Korea Translation & Interpretation
Catalog design 37° communication (www.37com.co.kr)
printing Kappdprinting (031-906-1162)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s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Art Space GEUMCHEON geumcheon.seoulartspace.or.kr
57, Beoman-ro, 15-gil, Geumcheon-gu, Seoul, Korea (153-814)
T. +82-[0]2-807-4800 F. +82-[0]2-807-4125

<http://www.seoulartspace.or.kr>
http://blog.naver.com/sas_g
<http://geumcheon.blogspot.com>

2 0 1 1 - 2 0 1 2

S e o u l



서울시립미술관
금천예술공장

A r t S p a c e

G E U M C H E O N